

광주 서구갑 '86세대' vs 'DJ맨' 2파전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맞붙게 된 더불어민주당 송갑석(왼쪽) 노무현재단 광주운영위원과 민주평화당 김명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청와대 행정관

민주당, 전대협 의장 출신 송갑석 3전4기 노려 평화당, DJ정부 靑 행정관 김명진 뒤집기 올인 민주당 '공천 내분', 평화당 '낮은 지지율' 변수

소속 도전했다가 박해자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 무소속 정용화, 조영택 후보 등에 밀려 4위로 또 다시 고배를 마셨다. 그리고 4년 뒤, 다시 찾아온 선거에선 우여곡절 끝에 박 후보를 경선에서 누른 뒤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전했으나 '국민의당 녹색 돌풍'에 결국 종친인 송기석 전 광주지법 부장판사에게 무릎을 꿇어야만 했다.

선거법의 탓에 걸린 종친 송 의원의 중도 낙마로 2년 만에 찾아온 또 한 번의 기회에 그는 박 전 의원과 운명적인 리턴매치를 벌여야 했고, 중앙당의 전략공천 카드가 결국 무위로 돌아가면서 드라마틱하게 4번째 총선 출전권을 따냈다. 여당 후보로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명진 후보는 22년 동안 여·야 정당,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청와대, 국회, 공기업 등에서 활동하며 잔뼈를 키워왔다. 해군 정보장교 출신인 그는 특히 국정감사 베스트 의원 보좌관을 비롯해 DJ 특보단 간사, DJ 비서실 행정관, DJ정부 대통령직 인수위 행정관을 지내는 등 DJ와 인연이 각별하고 깊다. 옛 민주당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대표를 지낸 'DJ 비서실장' 박지원 의원의 비서실장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 블로그 등 SNS에 최다 'you can do'를 사용 중인 그는 "일당 복수는 필연적으로 오만을 낳을 수 있다"며 '호남 민생 행기는 광주의 대변인'을 슬로건으로 민주당에 맞선 평화당 바람을 자신하고 있다.

서구갑 재선거는 유권자 12만명에 투표율을 50%로 가정하면 3만표 수준에서 당락이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고소·고발과 이로 인한 원팀 붕괴와 일부 지지층 이탈, 송 후보의 음주운전과 사기 전과, 평화당의 한 자릿수 비박세 지지율과 김 후보의 인지도 등이 변수이자 관전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송 후보는 "광주 유일의 여당 국회의원이 배출돼 문재인 정부와 호남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주문했고 김 후보는 "선거 다음날 임기가 곧바로 시작되는 만큼 전국적 정당 지지도와 상관없이 인물을 보고 찍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서구갑 재선거는 송기석 전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 판결을 받으면서 치러지게 됐다.



文대통령, 싱가포르 갈까...시진핑 합류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달 12일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싱가포르로 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싱가포르를 방문할 것인 관측이 나오면서, 문 대통령도 합류해 '북미 회담'을 남북미중 4자 회담'으로 확대할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시 주석이 '싱가포르 북미회담'에 참여하면 한국전쟁 정전협정의 서명 당사자였던 미국(유엔 사령부 대표), 중국, 북한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다는 의미가 있다. 당시 남한의 이승만 대통령은 '북진 통일'을 주장하면서 정전협정 서명에 참여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이번에 싱가포르로 향한다면 한반도 분단의 당사국인 대한민국도 함께해 상징성

시진핑 참석 시 정전협정 당사국 한자리...靑 " 지켜보겠다"

문 대통령은 "북미 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린다면 문 대통령이 자연스럽게 합류해 남북미 회담으로 연계할 수 있지만 싱가포르의 여건이 어렵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시 주석이 싱가포르 비행기에 타기로 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남북미중 정상이 싱가포르에서 정전선언을 밝히는 일정도 더

이 커진다. 아울러 북미회담 결과를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이 직접 공유받는 계기도 된다. 비핵화 의제를 중심으로 한반도 주요국들이 입장 정리하는 자리로도 이어질 수 있다. 남북미중 정상이 싱가포르에서 정전선언을 밝히는 일정도 더 해질 수 있다. 다만 다자외교가 아닌 양자 회담에서 제3국 정상이 합류하는 모습이 어색하다는 분석도 있다. 한중 정상이 합류하면 가까스로 이뤄진 북미 정상회담 본연의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우려도 있다.

구충곤 화순군수·민주 지방의원 후보들 오늘 출마선언

구충곤 전남 화순군수가 14일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6·13 지방선거 화순군수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구 군수는 이날 선거사무소에서 더불어민주당 화순지역위원회 소속 도의원, 군의원 후보 12명과 함께 공동 출마선언을 하고 필승을 기원하는 퍼포먼스도 펼친다. 이들은 공동출마선언을 통해 '화순 사는 자부심'을 강조하며 미래 화순의 청사진을 밝힐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구 군수는 화순군선거

관리위원회에 화순군수 예비후보로 등록한다. 군수직무 정지에 따라 김경호 부군수가 화순군수직을 대행한다. 구충곤 군수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후보 모두가 압승해 화순발전의 초석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손훈모 순천시시장 예비후보 "노관규·서갑원 구태정치 순천서 끝낼 것"

"민주당과 1대 1 구도서 무소속 후보 당선시켜 달라"

손훈모 순천시시장 예비후보가 이른바 순천의 노관규·서갑원 구태정치를 순천땅에서 끝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손 예비후보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순천시시장후보 무소속 단일화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손 예비후보는 입장문에서 "단일화의 큰 틀에 뜻이 모아졌고, 민주당 후보와 1대 1 구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무소속 시민후보를 당선시켜 오만한 민주당과 노관규, 서갑원 두 정치인의 구태정치를 순천에서 끝내야 한다"고 주

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공천이면 당선"이라는 오만함이 가득한 동영상을 보고 짧은 정치인으로서 매우 분개했고 이에 무소속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가짜비와사건, 허위 대자보사건 등으로 민심을 조작하고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네거티브"며 "불의에 대한 분노의 외침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온 힘을 다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시민의 선택권과 경쟁력을 위해 신탁호, 허정인씨 등의 다양한 참여가 필요하며 본인은 불

박원순, 오늘 예비후보 등록...시장 권한 정치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14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선거 예비후보 등록함에 따라 이시간 이후로 시장 권한이 정지된다. 13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회의를 주관하고 오후 서울의료원(서울 중랑구 신내동)을 찾아 시장권한 정지전 마지막 일정으로 민생안전을 점검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서울시 직원들에게 전 지우편을 보내 시정 공백에 따른 시민 불편 최소화를 당부할 예정이다. 예비후보 등록 전후 소회는 페이스북을 통해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박 시장은 시정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후보등록을 늦춰 왔다. 뉴스



쏘시게가 돼 순천의 정의를 세우는데 앞장 보고 달려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손훈모 예비후보가 주장하는 동영상은 민주당 시장경선 결과 발표 직후 허석 예비후보 지지자에 의해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동영상은 민주당의 경선결과에 시민들이 동의하지 않은 분위기에 편승해 시민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는 평가다. 순천=김종영 기자

아호센터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아호의 꿈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아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Drawing 이호동

062-960-6980
광산구 시암로 340번안길 5

Together 광산구